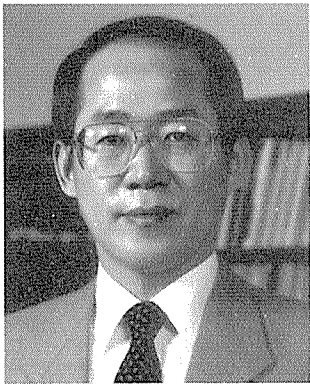


21세기를 대비한 해외유전개발전략

이 자료들은 지난 4월 23일 한국종합전시관 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석유개발협회 공동주최의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李會晟
<에너지경제연구원장>

I. 국제에너지시장의 여건변화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서해빙무드는 자유시장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제교역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양극체제의 몰락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세계경제 다극화 현상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EC통합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블록화 움직임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을 계기로 세계경제를 美國과 EC, 그리고 일본을 축으로 한 3극체제로 재편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국제화, 지역화, 개방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는 에너지 부문으로까지 확산되어 향후 소련 및 공산권과의 자원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는 대외적으로 국가간 에너지자원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 대해 개방과 경쟁도입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국내에너지시장은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른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세등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환경이슈는 세계석유산업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시장 변화에 민감한 우리의 석유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와 석탄등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핵융합이나 태양에너지 등 신에너지기술이 대규모로 활용되기까지는 반세기 이상 기다려

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는 다시말해 최소한 앞으로 수십년간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이 유지될 수 밖에 없고 당분간은 세계에너지소비의 70% 이상을 화석에너지로 충당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안정되어 온 국제에너지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구조적인 불안요인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석유수요는 환경이슈의 부각등으로 정체되는 반면 개도국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석유 수요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공급부문에서는 非 OPEC 지역에서의 탐사·개발이 부진하고, 자국내소비 증가로 수출 여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가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21세기 에너지시장은 향후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다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에너지수입 의존전략 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상호 연계된 국제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석유를 적극적으로 개발·수입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로 판단된다.

II. 국내의 유전개발 현황

1. 해외유전개발 현황 및 추세

현재 전세계에는 약 1조배럴 이상의 개발가능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예상 가채년수도 현재는 약 40년 정도로 산정되나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술적 또는 지리적 여건상 개발되지 못한 심해저 분지등 유망지역의 개발과 향상된 탐사기법 적용에 의한 신규유전 발견 또는 최신의 생산기법에 의한 추가 생산가능물량까지 합하면 궁극가채 매장량은 2조배럴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유전개발分野는 세가지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첫째, 메이저를 중심으로한 석유사들은 '88년 이후 안전위주의 매장량 구매전략에서 서서히 미탐사지역(Frontier)에 대한 탐사, 기술진보에 따른 회수증진 사업의 시행, 중소규모의 유전개발등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사들의 탐사 및 개발 예산은 1986년의 큰 폭의 하락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Salomon Brothers 社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도 석유사의 탐사·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10% 이상

〈표-1〉

주요 석유사들의 탐사·개발예산 추이

(단위: 억달러)

	대상기업수	예산		전년대비증감
		1985년	1986년	
1986	53	309	190	-38%
1987	202	1986년	324	-6%
		1987년	305	
1988	207	1987년	309	8%
		1988년	334	
1989	200	1988년	389	3%
		1989년	401	

〈자료〉 Salmon Brother, 연간 석유사 탐사예산 조사자료, 1990.

〈표-2〉

석유발견비용

(단위: \$/B)

	1980	1981	1983	1985	1987	평균
전 세계	8.40	12.22	6.22	9.39	4.39	8.40
미국	9.76	11.64	8.10	14.38	6.26	9.81
기타	6.54	6.18	4.48	5.57	3.23	5.51

〈자료〉 Salmon Brother, 30대 석유기업, 1990.

증가한 수준이었으며, 유가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경우 조사대상 기업 50% 이상이 투자규모를 증대시킬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표-1 참조). 이같은 석유사들은 적극적인 개발투자전략의 배경에는 油價強勢와 함께 그동안 활발한 유망광구 매매활동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강화, 기술진보로 인한 석유발견비용('80년: \$8.40/B→1987년: \$4.39/B)의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표-2 참조).

둘째, 산유국들은 그동안 저유가로 위축되었던 광구 분양을 확대하고 개발조건을 완화하는등 외국과의 합작개발에 적극적인 점이다.

OPEC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은 90년대의 석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대전략의 하나로 생산능력의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OPEC산유국들은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수년동안 상류부문 개발이 매우 부진했던 알제리는 생산능력 확대와 매장량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 Total, Lasmco, BHP 등 소비국 국영석유회사 및 국제석유사들에게 생산이익의 30%를 보장하는 PSC 계약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석유사

들은 이러한 개발조건 개선에 자극받아 알제리의 광구취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걸프사태 이후 전후 석유시설 복구 등을 위한 자금부족이 심각한 이라크, 쿠웨이트등도 그동안 저조하였던 개발투자에서 벗어나 미개발된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 첨단기술을 이용한 매장량 회수를 증대,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외국회사들이 개발참여 방식의 도입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소련, 중공, 베트남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최근 개혁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석유개발부문에서도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외국석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생산물 분배계약의 조건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한 바 있다. 소련은 신규유전의 탐사·개발뿐만 아니라 기생산유전에 대해서도 외국자본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소련의 유전개발개발은 외화수익의 증대 및 추가 매장량 확보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서방의 최첨단 회수 기술과 자금을 이용함으로써 생산유전의 생산성 향상과 열악한 여건의 광구개발을 추진하기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표-3〉

일본의 해외 유전개발 지원정책

	기 초 정 비	탐 사	개 발·탐 사
석유개발기업의 해외유전개발 프로젝트	-석유공단에 의한 해외지질구조조사 및 해외석유개발정보 수집 -남극지역기초지질 조사	-석유공단에 의한 직접투자자제도(70-80%) 및 직접이권 취득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개발자금투자제도(80%) -석유공단에 의한 개발자금차입채무보증제도(60-70%)
세 제 정 책		-감모공제제도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제도	-해외생산유전권익 취득에 관련된 세액공제 또는 특별공제 -해양유전·가스전 폐광 준비금제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
기 술 개 발	-석유공단에 의한 석유개발기술자 훈련사업(50%) -석유개발기술자 강습회(50%)	-석유자원원격 탐지기술 연구(100%) -고정도유층 평가법연구 개발(100%)	-2,3차 회수기술연구개발(75%) -오일셀개발기술연구개발(75%) -해외석유생산지원시스템 개발연구(100%)

〈표-4〉

투자실적 (1992년 12월 기준)

	투 자 비 (천달러)	기금용자금(천달러)		
		성 공 불	일 반	계
개 발 사 업	675,970	64,135	18,158	82,293
탐 사 사 업	233,993	71,300	-	71,300
중 료 사 업	95,375	26,980	-	26,980
총 계	1,005,338	162,415	18,158	180,573

〈표-5〉

개발도입 실적 (1992년 12월 기준)

	1989	1990	1991	1992
개발도입량(천배럴)	7,707	7,661	7,000	7,347
총원유도입에 대한 비중(%)	2.6	2.5	1.8	1.4

셋째, 소비국들은 장기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 미탐사지역의 탐사·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등 21세기를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국인 미국은 산유량의 급속한 감소현상과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위기감의 고조로 심해져 개발 및 북극등의 프론티어 지역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美國 정부는 이들 지역의 유전개발에 관련된 투자계획에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외국석유사의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약조건을 개선하도록 산유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은 그동안 저유가의 유리한 환경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90년대 이후에도 새로운 에너지 안정확보를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활발한 해외유전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나갈 전망이다.

1983년, 日本정부는 1995년까지 수입원유중 일본 자체생산원유의 목표율을 30%로 설정하고 현재 약 30개국 100여개 이상의 해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발실적으로는 1989년 총 원유수입의 13%, 1990년에는 11%를 충당하였다. 日本의 사업참여 기업수만도 무려 140여개로서 거의 전업종에 걸친 기업들이 8개의 총괄회사를 설립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전담토록하고 있으며 국영 석유회사인 일본석유공단(JNOC)도 각 사업별 Project Company에 자본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日本정부는 탐사단계에서 석유공단을 통한 성공불용자, 개발단계에서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저리의 자금용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석유개발 관련 세제를 통한 세제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표-3 참조)

대만은 정부가 100% 출자한 일관조업회사인 CPC를 중심으로 CPC 산하 8개 기관에 의해 자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석유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970년 이래 대만은 OPIC 이름하에 해외 유전개발을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석유사들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89년말 현재 OPIC는 9개국의 11개 광구에서 탐사·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6개 광구에서는 운영권자로 활동중이다.

2. 우리나라의 해외유전개발현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를 둘러싼 여러가지 주변환경속에서 과연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구 유전개발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그동안 23개국에서 38개 사업에 참여하였다. '93년 3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르헨티나를 포함 18개국에서 총 25개사업을 추진중이며 총 투자비는 성공불 용자등 기금용자금 1억 8천만달러를 포함, 총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중 마리브, 마두라광구등에서 7억6천만달러를 회수함으로써 총 투자비의 76.4%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표-4 참조).

정부는 2000년에 총 도입원유의 10%를 개발수입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1992년 12월을 기준으로 1989년의 경우 총 원유도입비중 2.6%, '91년에는 1.8%,

1992년에는 1.4%로 해외유전개발도입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표-5 참조).

III. 정책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유전개발사업은 단순한 지분 참여를 통해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하는 幼兒段階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성장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해외유전개발 사업자의 경우 기술력과 자본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메이저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며, 소비자이며 공급자인 산유국에 대한 교섭력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기술력과 경험축적 문제, 투자재원의 절대 부족, 관련 해외정보 및 개발대상지역의 평가방법(Evaluation Technique) 열세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중 어느것도 단기간내에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하고 한차원 높은 유전개발의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술력과 자본력을 재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선택된 특정시장에 대한 집중화된 노력(Focusing Strategy)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1.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노고의 전환

21세기를 대비해 추진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유전개발에 대한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21세기를 대비한 유전개발전략에는 기존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단순한 자주개발·수입차원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상·하류부문의 균형 유지, 해외유전개발사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석유제품의 전략상품화 추구라는 새로운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총체적인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1) 상류부문 확보→수직결합체계 확립

우리의 정유회사는 상향성 수직결합조직을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한다. 상류부문의 안정적 확보는 원유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상류와 하류부문으로 분산 시킴으로 이윤창출의 기회를 다원화시켜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직결합 조직 구성은 유전의 직접탐사 개발투자를 통한 확보와 유전매입을 통한 확보의 두가지 방법을 적절히 배합

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유회사별 자금조달능력과 기술력에 알맞는 개별회사별 장기개발수입목표를 설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해외유전개발사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향후 펼쳐질 각국간 자원쟁탈전은 단순한 원유 확보차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내륙유전의 경우, 유전개발시 부대적으로 수반되는 하부구조를 위한 건설 및 토목, 수송분야로부터의 경제이익은 자연적으로 개발권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전개발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정부의 유전개발정책은 유전개발로부터의 단기적 경제성보다는 장기적 거시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3) 석유제품의 전략상품화 추구

앞으로의 유전개발 형태는 단순한 개발·수입에서 벗어나 개발된 석유를 개발지역의 하류부문과 결합시키는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 측면이나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향후 석유산업을 내수 위주용에서 미래지향적인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구체적 장단기목표 및 자원조달방안 마련

둘째,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탐사 및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 장단기 자원조달 방안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정유회사의 상류진출을 지원하고 원유개발·수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2000년까지 총 원유도입량 목표를 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수입추세로 보아 등 목표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보다 가시화된 분야별(기술, 정보, 자원등) 전략을 수립할 시기로 판단된다.

기존의 자금도 목표 10%에 접근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약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소요가 예상된다. 유전개발분야의 선두주자인 일본의 경우 1995년까지 개발·수입의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있으나 1992년에는 11%를 달성하는데 그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도 새로히 조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참여사별 장

기목표를 설정토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기존제도의 개선

국내 기업들로서는 기금용자액을 제외한 나머지 탐사자금의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인하여 석유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기금용자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석유개발사업에 대해 수출입은행이나 시중은행을 통한 은행금융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적인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아쉽다.

(2) 유가개발기금제도의 신설

앞서 언급한 기존의 용자제도 개선 자체만으로는 향후 소요될 재원충당이 불가능하다. 2000년까지 자금도 목표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50억달러 이상의 자금소요가 예상되는데 이를 원활히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유와 제품수입시 일정액의 기금을 징수하는 가칭 「유전개발기금제도」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유 및 제품수입시 배럴당 1달러정도의 유전개발기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약 5억달러 정도의 기금징수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현행 석유사업기금과 연결, 이중부담에 따른 비판도 있고 국내유가 상승도 불가피하겠으나, 석유소비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개발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도 안될 것이다.

(3) 국(공)채 발행제도 활용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장기국(공)채 발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채권을 구입하는 일반소비자에게 만기시 일정율의 금리(시중금리수준)를 보장해주며 유전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의 일정분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가 채무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장기저리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함께 해외유전개발을 국내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에 따른 유전개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투자소요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3. 대상국가 및 진출방식의 다원화 유도

(1) 한계유전개발에 참여 유도

세번째로 투자재원 및 기술면에 있어 타 경쟁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우리는 범세계적 유전개발시장에서 제한적이거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사업자로서의 참여는 사업추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업관리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사업자로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계유전개발의 적극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한계유전은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시장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한계유전참여시 경제성 확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한계유전 참여로 얻어지는 경험 및 기술의 축적과 다양한 분포도에 따른 공급의 다양성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2) 외국국영석유회사와의 공동법인 형성 유도

해외유전개발의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독자적인 사업이 어려울 경우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 개발·생산단계에서는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와 전략적 연대를 위해 국내정유회사와의 공동출자 유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술력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외국국영석유회사와의 협상력이 낮을 수 밖에 없으나 향후 정부가 유전개발전략을 산유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자원의교노력을 추진할 경우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4. 개발전략정보체제 (Developing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의 구축

넷째, 민간기업은 정부관련 투자기관 및 연구소와 연계된 개발전략정보체제 (Developing Strategic Information System)가 확립되어야 한다. 개발전략정보시스템이란 기존의 정보관리체제를 경쟁력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유전개발사업

의 성공여부는 누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경제성 있는 유망광구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에 대한 투자가 탐사에서 개발, 수송에 이르는 전체비용을 근원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기업과 정부가 연계된 집중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존의 해외유전개발 정보는 참여기업들의 해외지사를 활용한 자사 중심의 정보수집체계가 주를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유전개발사업의 특성상 정보의 독점은 어느기업에게나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집약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해외공관 및 정부차원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속히 민간기업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기간별, 사업단계별 기술축적계획의 수립

해외 유전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은 탐사, 개발 및 생산단계로 大別될 수 있다. 특히 각 사업단계별 기술축적을 위하여 위험부담이 높고 기술이전은 용이하지 않으나 유전개발시 타 경제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탐사기술과, 이미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기술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발 및 생산단계기술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내재된 위험 및 투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사업 단계별, 기간별 기술축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맺는말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억배럴 정도의 원유를 도입함으로써 매년 약 70억~80억달러를 원유도입대금으로 지불하고 있어 원유의 저가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해외유전개발이 강조되고 이를 확대,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유의 자급을 성취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보면 우리의 현 위치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개발사업 참여 초기단계에서는 외국회사를 운영권자로한 지분 참여자로서의 소극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였으나, 현재에는 국내대륙봉 석유탐사 작업에서 얻어진 귀중한 경험 및 외국회사와의 공동사업 참여에 의하여 터득된 기본적인 운영감각을 활용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해외유전개발사업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유전개발에 참여한지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동안 우리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기술축적, 정보체계 구축,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정부는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할 분담이 설정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이제 기업은 상류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기술과 운영의 자립을 이루고 상·하류부문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정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유전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회사별 장기적인 개발·수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경제성, 합리성 및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정부도 2000년대의 자주개발 원유도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축적과 합리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설정하고 총체적인 개발전략정보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적극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

피땀으로 이룬경제 과소비로 무너진다